



Kiwoom Weekly



2024년 9월 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침체 내러티브와 또 다시 마주하는 구간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8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발표 이후 침체 내러티브 재확산 여부, 2) 연준 베이지북 및 연준 인사 발언, 3)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AI 수익성을 둘러싼 시각 변화 등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20~2,760pt).

이처럼 시장의 색깔이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에서 “경기 펀더멘털 민감 장세”로 바뀌면서 “Bad news is bad news” 국면으로 이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 이는 금주 중 8월 초 증시 폭락 단초였던 침체 내러티브를 촉발시킨 8월 ISM 제조업 PMI, 고용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한편, 엔비디아 실적 발표 AI, 반도체주들의 주가는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AI 산업의 수익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는 실정. 이런 측면에서 주 후반 예정된 브로드컴의 실적 및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수요 및 이익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형성될지 여부도 주중 관전포인트.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 김지현

jeehyun12@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3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후반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며 보험권 움직임을 보이다 엔비디아 실적 확인 이후 반도체 업종 매물 출회되며 낙폭 확대 했으나, 이차전지, 밸류업, 제약바이오 등 여타 업종들로 수급 분산되며 하단 지지(KOSPI -1.01%, KOSDAQ -0.72%)

26일(월) 국내증시는 잭슨홀 미팅 금리인하 시사에도 엔비디아 실적 경계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 외국인 반도체 순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가하며 약보합 출발. 금융, 제약바이오, 운수장비 등 업종간 빠른 순환매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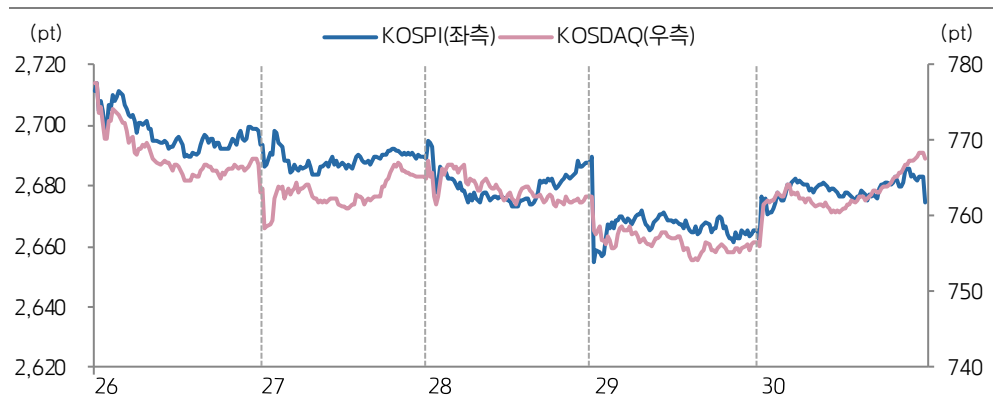
29일(목) 장전 발표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매출 300억 달러, YOY 122% (예상 287억 달러, 기존 가이던스 280억 달러), EPS 0.67달러 (예상 0.65달러), 매출 총이익율 75.7%(예상 75.5%)로 컨센서스 상회. 그러나 1) 매출 315~330억 달러 전망 역시 존재했기에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해석, 2) 블랙웰 출시 4Q 지연으로 인한 수요 공백, 3) 3분기 가이던스 총 마진 둔화 예상 등의 이유로 시간외에서 -6%대 급락세,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SK하이닉스 -5%대, 삼성전자 -3%대 등 반도체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며 코스피 -1%대 약세 보였으나, 이차전지, 밸류업, 일부 소프트웨어, 미디어 업종으로 수급 분산되며 200일선에서 지지. 30일(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중립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인식 속 반도체 업종 반등 성공, 금리인하 수혜 및 실적 기대감 유효한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며 강보합 마감.

업종별로 전기가스업(+3.38%), 의약품(+3.2%), 운수장비(+0.85%), 유통업(+0.67%), 화학(+0.55%) 강세, 의료정밀(-7.12%), 전기전자(-2.49%), 보험(-2.17%), 금융업(-2.16%), 음식료품(-2%) 약세.

외인(-2조 100억원)은 의약품(+1,172억원), 운수장비(+475억원), 전기가스업(+295억원), 운수창고(+213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기관(+1조 2,384억원)은 서비스업(+2,332억원), 금융업(+2,217억원), 전기전자(+1,132억원), 의약품(+1,065억원)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9월 2일	월	한국	수출액 (YoY) (9/1)	8월 12.6%	13.9%
			수입액 (YoY) (9/1)	8월 6.5%	10.5%
		중국	Caixin 제조업 PMI	8월 49.9	49.8
		EU	제조업 PMI (확정치)	8월 45.6	45.8
	회의	OPEC 회의			
	휴장	미국			
9월 3일	화	한국	CPI (MoM)	8월 0.3%	0.3%
			CPI (YoY)	8월 2.1%	2.6%
		미국	제조업 PMI	8월 48.1	48
			ISM 제조업 PMI	8월 47.5	46.8
9월 4일	수	중국	Caixin 서비스 PMI	8월 52.1	52.1
		EU	마켓 종합 PMI (확정치)	8월 -	50.2
			서비스 PMI (확정치)	8월 -	51.9
			생산자물가지수 (YoY)	7월 -2.5%	-3.2%
			생산자물가지수 (MoM)	7월 0.3%	0.5%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7월 -	8.184M
	공개	연준 페이지북			
9월 5일	목	한국	GDP (QoQ) (2 분기)	2 분기 -0.2%	1.3%
			GDP (YoY) (2 분기)	2 분기 2.3%	3.3%
		EU	소매판매 (YoY)	7월 0.1%	-0.3%
			소매판매 (MoM)	7월 0.1%	-0.3%
		미국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8월 148k	122K
			마켓 종합 PMI	8월 -	54.1
			서비스 PMI	8월 -	55.2
			ISM 비제조업 PMI	8월 51	51.4
9월 6일	금	EU	GDP (QoQ) (확정치)	2 분기 -	0.3%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YoY)	8월 3.7%	3.6%
			평균 시간당 임금 (MoM)	8월 0.3%	0.2%
			비농업고용자수	8월 165K	114K
			경제활동참가율	8월 -	62.7%
			실업률	8월 4.2%	4.3%
	발언	뉴욕 연은 총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8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발표 이후 침체 내러티브 재확산 여부, 2) 연준 베이지북 및 연준 인사 발언, 3)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AI 수익성을 둘러싼 시각 변화 등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20~2,760pt).

30일(금) 미국 증시는 7월 PCE 물가 둔화 및 8월 소비심리지수 호조 속 주가 급락 과도 인식 등에 따른 엔비디아(+1.5%)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6%, S&P500 +1.0%, 나스닥 +1.1%). 7월 헤드라인 및 코어 PCE가 각각 2.5%(YoY, 컨센 2.6%), 2.6%(YoY, 컨센 2.7%)로 둔화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정책 및 증시 방향성의 메인 변수에서 벗어 났음을 재확인한 모습. 8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호조(67.9, 컨센 67.8), 3분기 GDP 전망치 상향(2.0% → 2.5%) 등으로 경기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도 위험선호심리 확산에 기여.

이처럼 시장의 색깔이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에서 “경기 펀더멘털 민감 장세”로 바뀌면서 “Bad news is bad news” 국면으로 이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 이는 금주 중 8월 초 증시 폭락 단초였던 침체 내러티브를 촉발시킨 8월 ISM 제조업 PMI, 고용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현재 8월 신규 고용과 실업률의 컨센서스는 각각 16.5만건(vs 7월 11.4만건), 4.2%(vs 7월 4.3%)으로 지난달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형성되기는 했음. 문제는 쇼크를 기록할 시 증시에서는 또 다시 침체를 주가에 반영하려 들 소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전과 달리 침체 내러티브가 확산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이나 지속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8월 말 잭슨홀 미팅을 통해 침체 내러티브 확산이 제어된 측면이 있기 때문.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1)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실업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진단했으며, 2) 경기 소프트랜딩을 위한 정책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 (엔비디아 실적 이슈로 지난주 변동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잭슨홀 이후의 주식시장의 반응을 미루어 보아 시장 참여자들 역시 파월 의장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고용지표의 선행 역할을 하는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연착륙 기대를 강화 시켜주는 요인. 따라서, 실업률 기준으로 컨센 대비 0.2%p 상회하는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8월 초에 준하는 주가 급락이 출현한 확률은 낮을 전망이다.

한편, 주말 중 발표된 한국의 8월 수출(11.4%YoY)은 컨센(12.6%)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조업일 수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하면 중립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 동시에 반도체(7월 +50.2% → 8월 +38.8%), 가전(9.3% → -4.9%) 등은 부진한 반면, 바이오헬스(29.0% → +39.0%), 선박(-36.2% → +80.0%), 자동차(-9.1% → -4.3%) 등은 호조세를 보이는 등 주력 품목 간 혼재된 결과를 연출했다는 점도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

이는 한국 수출과 코스피 이익 전망에 영향을 주는 지표이자, 실질적인 미국 경기선행지표인 8월 ISM 제조업 PMI 결과의 중요성을 높일 것. 현재 컨센서스는 47.5pt로 7월(46.8pt)에 비해 양호할 것으로 형성된 가운데, 고용(6월 49.3 → 7월 43.4로 폭락), 신규주문(6월 49.3 → 7월 47.4로 둔화) 등 세부 항목들의 수치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엔비디아 실적 발표 AI, 반도체주들의 주가는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AI 산업의 수익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는 실정. 이런 측면에서 주 후반 예정된 브로드컴의 실적 및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수요 및 이익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형성될지 여부도 주중 관전포인트가 될 것.

2024년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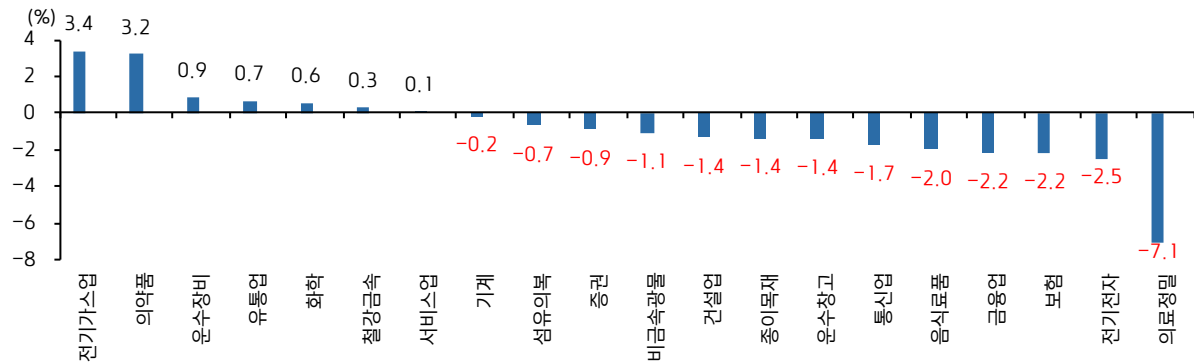
KIWOOM WEEKLY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674.31	0.5	-1.0	-2.3	0.7
대형주	2,677.82	0.4	-1.0	-2.3	1.0
중형주	2,914.92	0.8	-0.6	-1.7	4.6
소형주	2,241.65	0.6	-1.5	-3.0	-2.0
코스피200	361.55	0.4	-1.7	-3.6	1.0
코스닥	767.66	1.5	-0.7	-4.5	-11.4
대형주	1,861.42	1.6	-0.7	-3.4	-8.3
중형주	648.50	1.6	-1.2	-6.2	-9.3
소형주	2,463.11	1.1	-1.0	-5.0	-12.2
코스닥150	1,294.69	1.8	-0.6	-3.6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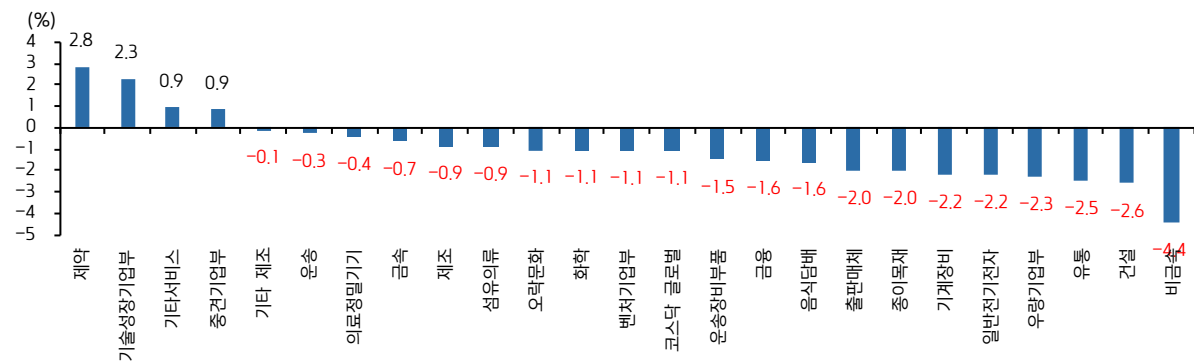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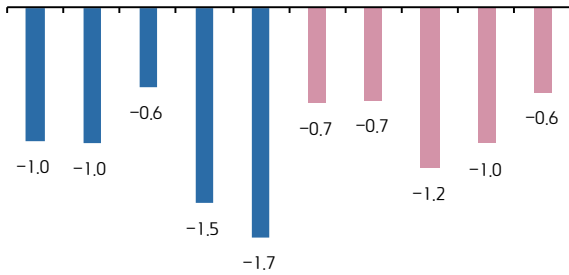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9월 2일

KIWOOM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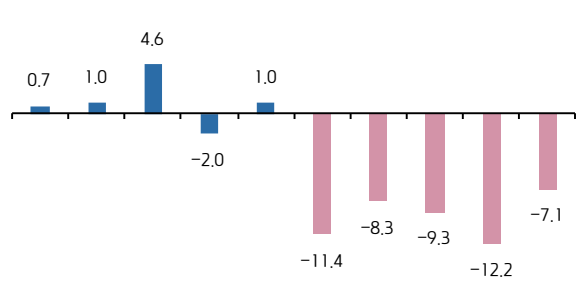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코드	코스피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005930	삼성전자	4,435,548	10,515	-4.4
2	000660	SK 하이닉스	1,264,540	10,169	-6.4
3	373220	LG 에너지솔루션	907,920	1,641	8.1
4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697,505	1,273	2.4
5	005380	현대차	535,058	2,588	1.2
6	068270	셀트리온	440,553	1,324	0.3
7	000270	기아	424,250	1,488	2.0
8	105560	KB 금융	346,616	861	-1.0
9	055550	신한지주	285,770	835	-6.5
10	005490	POSCO 홀딩스	280,923	8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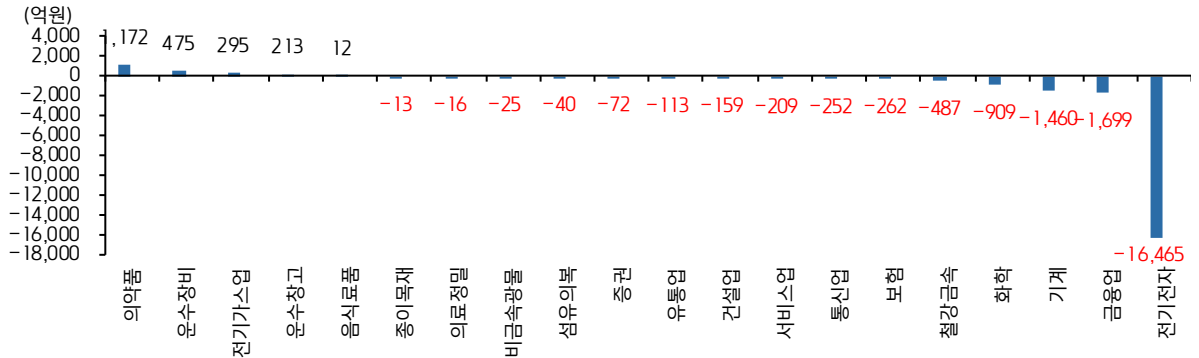
순위	종목코드	코스닥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196170	알테오젠	169,544	2,371	1.3
2	247540	에코프로비엠	164,600	921	-3.3
3	028300	HLB	117,499	1,160	4.7
4	086520	에코프로	113,966	536	-1.4
5	022100	포스코 DX	40,441	104	-4.8
6	348370	엔켐	39,807	511	-2.5
7	000250	삼천당제약	37,063	689	7.2
8	141080	리가캠바이오	35,324	809	3.1
9	145020	휴젤	34,346	150	-2.2
10	066970	엘앤에프	34,046	156	2.3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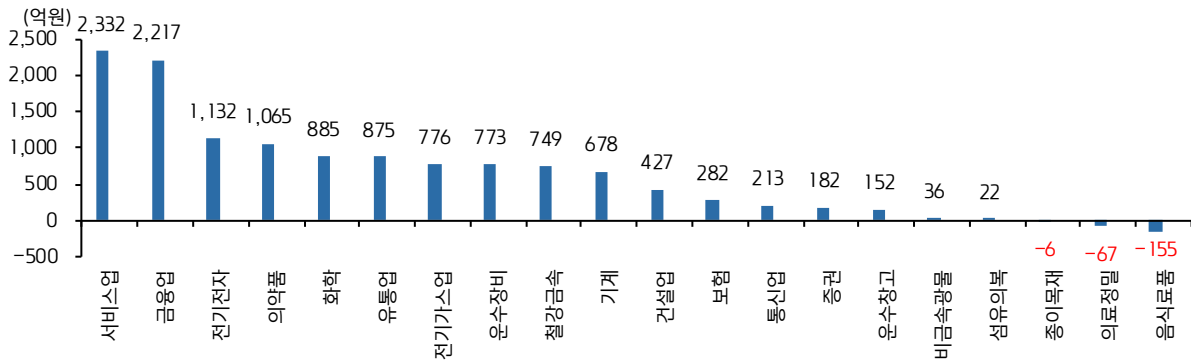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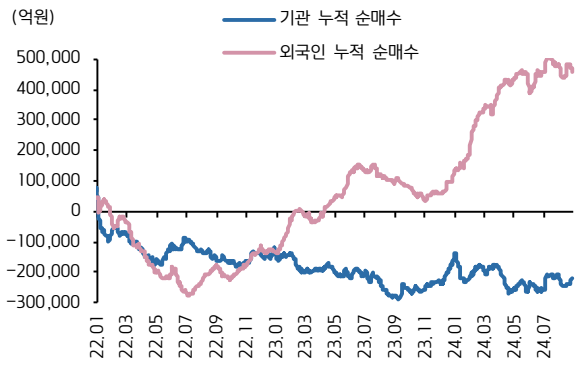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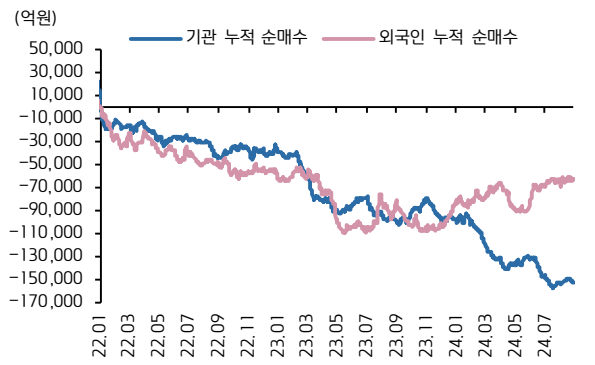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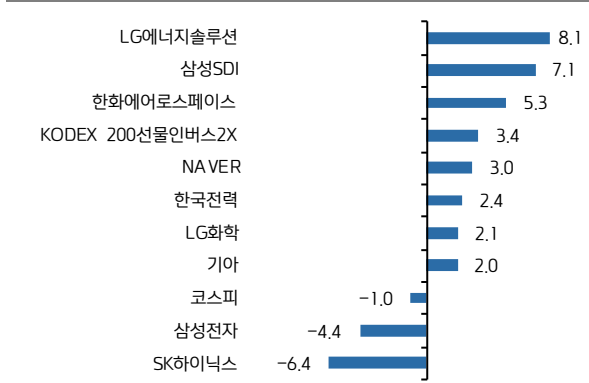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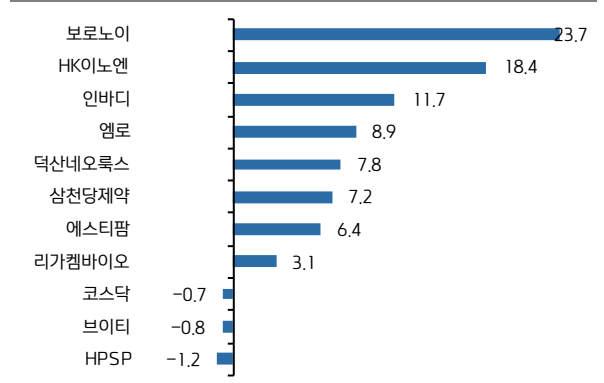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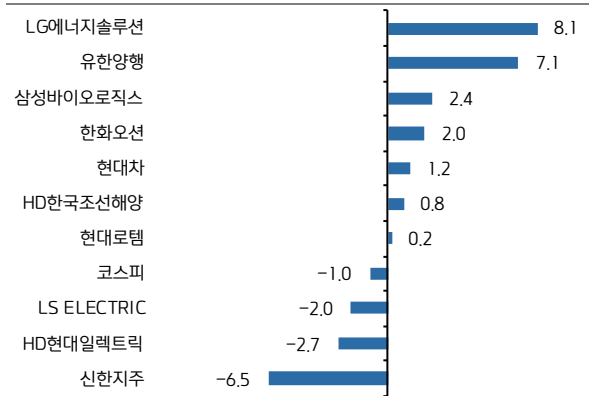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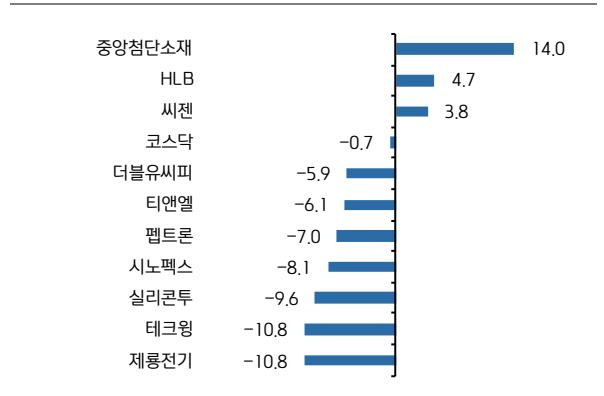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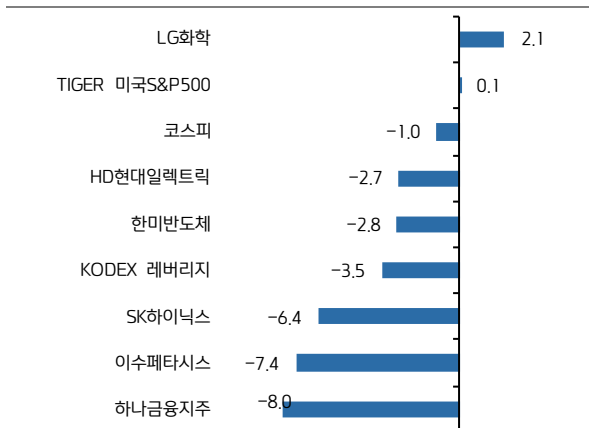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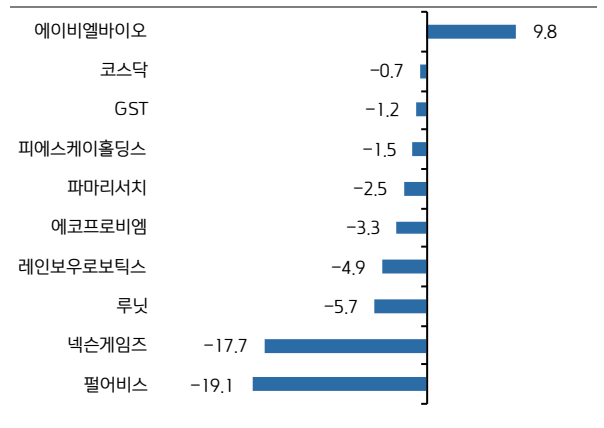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IWOOM WEEKLY

(좌원) 신용용자잔고(좌)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우)
 - - - 최근 1년
 - - - 코로나 팬데믹 이전 3년 평균

(%)

30
25
20
15
10
5

50
45
40
35
30
25
20
15
10

19/01 19/06 19/11 20/04 20/09 21/02 21/07 21/12 22/05 22/10 23/03 23/08 24/01 24/06

국가/지수	변동률 (%)
이탈리아	1.6
아일랜드	1.5
독일	1.5
홍콩	1.0
프랑스	0.8
스페인	0.7
영국	0.6
스위스	0.6
브라질	0.3
호주	0.3
대만	0.1
러시아	0.0
일본	0.0
베트남	-0.3
그리스	-0.4
선진국	-0.5
전세계	-0.5
신흥국	-0.5
멕시코	-0.7
S&P500	-0.8
중국	-1.1
KOSPI	-1.5

자산	변화율 (%)
국채	2.4
금융	2.1
은행	1.3
건강관리	0.8
에너지	0.8
지분채	0.7
호텔, 레지	0.6
상업 및 전문서비스	0.6
하드웨어	0.6
소재	0.5
음식료 및 담배	0.5
유틸리티	0.4
가정용품	0.4
통신	0.3
제약	0.0
운송	-0.1
소프트웨어	-0.4
부동산	-0.6
S&P500	-0.8
식료품	-0.8
엔터/미디어	-1.7
NASDAQ	-2.0
내구소비재, 의류	-2.1
유통	-2.1
자동차 및 부품	-5.3
반도체 및 장비	-6.9

키움증권 